서 교육감 "안전한 학교 만들겠다"

대전 A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긴급회의 개최… 학생 안전 강화 지시
모든 학교 대상 전면적인 점검 나서… "위험 징후 파악해 대책 마련"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통해 복직 절차 강화 등 주문

서거석 교육감은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이 무너지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꼼꼼히 살펴 이를 토대로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우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휴직 교원 중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을 한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심리정서 및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늘봄학교 학생들의 귀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 학교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 귀가를 도울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마음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는 12일 2층 강당에서 수능 우수 학생 93명에게 총 4,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능 우수 학생 93명에 장학금 지급

전북교육청 사랑의장학회, 총 4650만원… 1인당 5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사장 유정기)는 12일 2층 강당에서 수능 우수 학생 93명에게 총 4,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서거석 교육감과 일반고 교장단 간담회에서 '학교별 수능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달라'는 학교장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장학생은 도내 일반고에서 수능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의고사 대비 수능 성적이 향상된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아 최종 93명을 선발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수능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고교 시절 학업에 열중한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업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수업혁신·학력신장 정책 현장 안착 돕는다

전북교육청, 설명회 개최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초등 수업혁신 및 학력신장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초등 수업혁신 및 학력신장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인 학력신장과 수업혁신 과제를 안내하고, 이들 정책의 현장 안착 및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도내 초등학교 연구부장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4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1부 수업혁신, 2부 학력신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수업혁신 분야에서는 '학생의 질문과 사고력이 살아나는 수업'을 위한 △개념기반 탐구수업 △자발적 수업 공개 및 나눔 활성화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집 활용법도 설명했다.

이날 배부된 '개념기반 탐구수업 탐!탐!' 자료집은 개념기반 탐구수업 이해, 단원 설계의 실제, 주요 교과별 개발 단원 예시를 학년별로 묶어 총 5권 세트로 제작됐다.

특히 '2024 수업혁신 지원단'의 현장 연구 결과물을 상세히 수록해 현장 교사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어 학력신장 분야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 △교수학습 기반 조성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교원 교과 역량 강화 지원 등 4대 주요과제 중심의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초등 학력신장시스템은 AI 코스웨어, 초등 학습플래너,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난해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초등 학력신장시스템 '전북특별한클래스'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초등학생 어휘력 향상을 위한 초등어휘사전 1600, 전북 초등 학습코칭 도움자료 보급 등 학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수업혁신과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자율전공학부 RC 선배학습멘토 멘토링 캠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12일 3일간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RC 선배학습멘토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찰학과, 간호학과, 호텔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의 생활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19명의 선배학습멘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선배학습멘토 학생들은 이번 캠프에서 RC교육에 대한 이해와 멘토링 육성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한 관계 만들기 등의 시간을 통해 신입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학교육과 박성희 교수(RC 센터장)는 "전주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학습멘토를 비롯해 사제동행 지도교수,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CA)와 신입생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해 신입생을 다각도로 케어할 예정"이라며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은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조기에 학교에 정착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4년 교수 학습공동체 성과 공유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은 지난 11일 2024년 교수 학습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수 학습공동체는 교수자 간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향후 학습자 중심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모임으로, 이를 통해 각 교원들이 연구한 교수법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IB 파헤치기: 'IB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학교현장 적용 방안 모색' △애니타임 ^알고리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법 연구' △SSE 공동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하고 최신화된 디지털 교수법 모색' 학습 공동체 성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병춘 총장은 "바쁜 업무에도 학교발전을 위해 분야별 연구과제를 준비한 교수 학습공동체의 교수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공유회의 우수 연구 과제들이 전주교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수 학습공동체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청년고용정책 홍보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1일 2025학년도 졸업생특화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5학년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졸업생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진로·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 동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센터장은 "졸업생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족이 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해 경쟁력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한국폴리텍대학신기술교육원, ㈜공도 등 3개 기관과 '학교 밖 디지털 튜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돌봄기관 활용 학생들에 디지털 교육 제공

전주교육지원청,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과 튜터 지원 협약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지난 11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한국폴리텍대학신기술교육원, ㈜공도 등 3개 기관과 '학교 밖 디지털 튜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디지털 튜터' 사업은 민간부분의 혁신적인 교육 기술과 공교육을 통합해 학교 밖 돌봄기관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주교육발전특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이번 MOU에는 전주지역 학교 밖 돌봄 기관 학생의 디지털 교육 사업을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신장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는 튜터 양성과정 홍보를,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튜터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화과정 개발을, ㈜공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김정기 교육장은 "공교육의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 디지털 교육도 지원해 전주 관내 학생들의 미래교육과 디지털 역량 함양에 앞장설 것"이라며 "학교밖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체계적 운영 방안 공유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세부사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97개 고등학교장과 교감, 업무담당자 등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단위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주요 운영 사항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설명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밖 교육 및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방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의 핵심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로 인해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반을 적극 안내해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방향 설정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학점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인권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워크숍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인권감수성 강의법 등 주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강사단 28명을 대상으로 '2025 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학교 인권 교육 지원을 위한 인권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지도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학생인권과 교권(경인교육대 구정화 교수) △소통과 참여로 이끄는 인권감수성 강의법(오늘교육원 장현아 대표)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학생은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는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거버넌스 2025년 제1차 정기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2025년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전북 교육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교육거버넌스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ESG △인성회복 △지역사회 협력 등 3개 분과를 구성, 실효성 있는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를 진행한 정유미 부위원장은 "제3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전북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전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교육청은 교육거버넌스와 함께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